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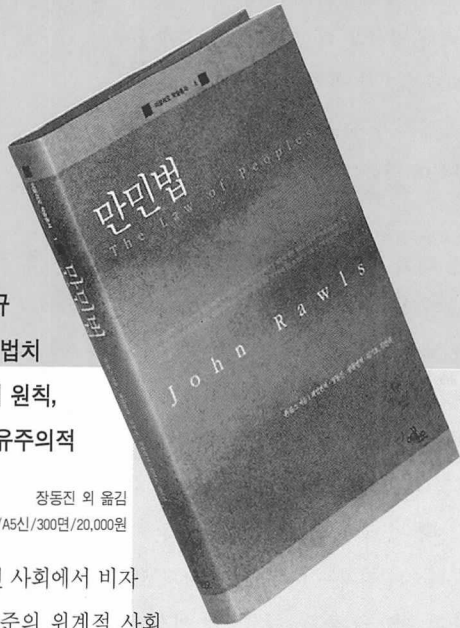
# ‘현실적 유토피아’ 실현 위한 철학 제시해

## 존 롤스의 《만민법》

박정순 | 연세대 철학과 교수

“‘만민법’은 공적 이성애 기초한 사회계약론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존 롤스는 이 책에서 인권에 기초해 어떻게 합당한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의관을 통해 규제된 시민들과 만민이 정의로운 국제사회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를 다뤘다. 입헌적 법치주의에서 보장된 자유와 권리, 공정한 기회 균등과 여성에 대한 평등한 정의, 민족자결의 원칙, 오직 자기방어만을 위한 전쟁의 허용 등이 바로 ‘현실주의적 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자유주의적 만민법의 근본적 측면이다.”



장동진 외 옮김  
이콜리오/A5신/300면/20,000원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 존 롤스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을 개진한 《정의론》(1971)을 통해 현대 자유주의 도덕과 정치철학을 선도해 왔다. 그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자유주의적 정의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 어떻게 공적 이성애 근거해 도출될 수 있는가를 해명한 《정치적 자유주의》(1993)로 철학적 기초를 공고히 한다. 《만민법》(장동진 외, 이콜리오)은 이미 발표됐던 <만민법>(The Law of Peoples)과 <공적 이성의 재조명>(The Idea of Public Reason Revisited)이라는 두 논문을 수정, 증보해 출판한 것이다.

### 공적 이성애 기초한 사회계약론 국제적으로 확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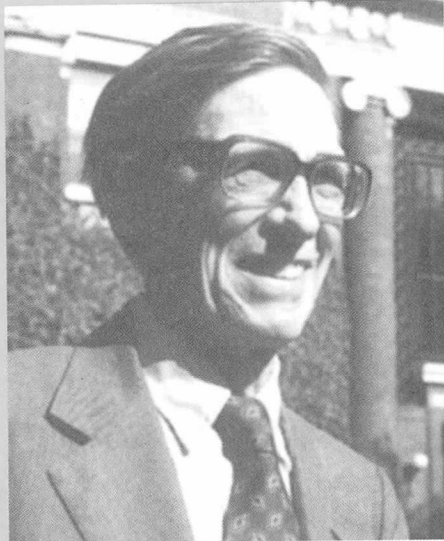
<공적 이성의 재조명>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가치관이 허용되는 다원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들을 논의할 때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교적, 도덕적, 철학적인 ‘포괄적 가치관과 교리’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공공적 토의와 합의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제약을 밝히고 있다. 공적 이성애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정하고 합당한 도덕적 기초, 사회적 기본구조에 대한 정치적 정의관과 정의 원칙들, 이런 원칙들의 타당한 적용과 판정 기준, 그리고 정치적 권력의 사용에 관한 자유주의적 합법성의 원리 등으로 이뤄져 있다.

<만민법>은 이런 공적 이성애 기초한 사회계약론을 만민의 사회로, 즉 국제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국제법의 기초가 되는 만민법은 자유주의와 비자유주의 사회들간의 상호 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된 일반적인 원칙들이다. 롤스는 우선 국내 사회를 합당한 자유주의적 사회, 그런 대로 품위 있고 질서정연한 비자유주의적인 위계적 사회, 무법적 국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 온정적 절대주의 사회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롤스는 이런 다섯 가지 사회를 이상적 상황과 비이상적 상황에서 각기 논의하

고, 자유주의적 만민 사회에서 비자유주의적인 적정수준의 위계적 사회가 관용돼야 하는 이유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결국 롤스의 <만민법>은 인권에 기초해 어떻게 합당한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의관을 통해 규제된 시민들과 만민이 정의로운 국제사회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종교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선거권과 동등한 정치적 참여의 자유와 언론·결사·거주이전의 자유 등 입헌적 법치주의에서 보장된 자유와 권리, 공정한 기회 균등과 여성에 대한 평등한 정의, 민족자결의 원칙, 오직 자기방어만을 위한 정의로운 전쟁의 허용 등은 바로 ‘현실주의적 유토피아’의 실현을 위한 자유주의적 만민법의 근본적 측면들이다.

롤스의 <만민법>이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비판적 논의가 상반되지만 연관된 양극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 양극의 한 축은 포괄적인 가치관을 배제하는 합당성과 공적 이성애 기초한 인권중심의 자유주의적 만민법에 대한 비판이다. 즉 만민법은 이미 정치적 자유주의의 가치를 전제하거나 그것에 따라 규정됐기 때문에 순환적 정당화이거나 자유주의적인 서구 중심주의일 뿐이라는 문화다원주의로부터의 비판이 그것이다. 그 양극의 또다른 한 축은 롤스가 국제적인 정치적·분배적 정의에서 최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다. 롤스는 우선 비자유주의적인 적정수준의 위계적 사회를 관용함으로써 강한 자유민주주의적 보편주의의 실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물론 초미의 관심사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의 삶의 기대치를 최대로 하는 조건 속에서만 정당화된다”는 롤스의 국내적 차등원칙을 지구 전체에 걸쳐 확대한 ‘지구적 차등원칙’ (the global



현대 자유주의의 사상적 원류로 평가받는 존 롤스.

difference principle)을 천명하는 국제적 평등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서구 중심의 일방적인 경제적 세계화로 승자전취 시장(winner-take-all-market)이 만연하고 있다고 갈파한다. 그 속에서 더욱 심화되는 국내적, 국제적 불평등 때문에 흔히 '20 대 80의 사회'라고 패러디되는 이 세계화의 만민 시대에 기아와 궁핍 등의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서 롤스의 <만민법>이 규정하는 "원조의 의무"만으로 과연 충분할 것인가?

#### 실현 가능한 희망 제시해

롤스의 <만민법>은 칸트의 <실천이성비판>과 그의 말년 대작인 <영구평화론>을 축소 결합해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 책이 이괄리오 출판사 학술총서 1호라는 점이 시사하듯이, 한국의 지성들이 2천년대에 처음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바로 존 롤스의 <만민법>이라고 서슴없이 추천하고 싶다. 물론 이 책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훌륭한 지적 논의와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와 연계된 삼부작의 일환으로 논의될 때 더욱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연세대 정치학과 장동진 교수와 두 제자들이

번역한 이 책은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적임자들에 의해서 매끈하게 번역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교수는 이미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번역함으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롤지안(Rawlsian)의 한 사람으로 등장했고, 두 제자들도 각각 롤스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 바 있기 때문이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그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제공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원류인 자유주의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대 자유주의의 사상적 태두인 롤스가 이 책에서 개진하고 있는, 공적 이성과 만민법에 기초한 자유주의의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는 '카자니스탄'이라는 비자유주의적인 가상적 이슬람 위계사회에 대한 관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롤스의 <만민법>은 이렇게 문명의 무자비한 충돌과 교류 없는 단순한 공존 사이의 딜레마를 피해가면서, 미래 사회에 대한 인류의 실현 가능한 희망(종교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여러 정치적 자유와 입헌적 법치주의의 자유와 권리, 여성에 대한 평등한 정의, 다원주의적 관용, 민족자결주의,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의 의무, 국제평화)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세계화 시대에 인상 깊게 제시하고 있다.●

## 2000 신저작권법축조개설(상,하) 출간 허희성(許熾成) 저



신국판·양장본·상 483쪽, 하 509쪽  
상 19,000원 하 21,000원 합 40,000원

오랫동안 기다렸던 저작권법 신간이 나왔다. 전송권의 신설과, 공중용 복사기의 사적사용 제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저작권등록제도의 보완 및 업무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 내용에 대해 국내 저작권계의 중시조라 할 만한 허희성 씨가 축조개설서를 내놓은 것이다. 저작권법의 개정시마다 써온 이 책은 세 번째 저작권법 축조개설서이다. 축조(逐條)란 조문순서에 따랐다는 뜻으로, 저작권법의 각 조문별 내용, 입법취지, 적용례 및 외국의 제도 등을 해설하고 있다. 이번에는 특별히 그동안 나온 국내 판례를 소개하면서 각 조문별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및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각 조문별 소제목을 부기한 국제적 논의사항이 돋보이는 바, '패러디' '퍼브리티티권' '캐릭터 및 상품화권'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전송과 링크' '병행수입' '전자출판' '위성방송' '집중관리제도의 재검토' 등 제목만 보더라도 저작권분야의 이슈임을 알 수 있는 항목들은 별도로 뽑아 해설하고 동료 후학들의 활발한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책상 위에 상비해 놓고 의문점이 생길 때마다 펼쳐보아야 하는 필수 전문서적이다. 원고량이 많아져서 상하로 분권했다.

\* 전자주문시 10%할인, 송료는 본사 부담.

저작권아카데미

전화: 서울 672-6672 ~ 1 / 팩스 672-6673 / 휴대폰: 011-9930-8401, 019-224-6745 / 입금계좌: 신한은행 338-5-021270 (입금 후 전화요망)